

---

# 외국인 대상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 I. 시작하며

## II.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분석

1.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해
2.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과 박물관 방문객 수
3.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

## III.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운영

1. 한국을 새기다
2. 한국을 빚다
3. 한국을 칠하다
4. 한국을 그리다
5. 한국을 쓰다
6. 한국을 두드리다

## IV. 결론 및 제언

## 외국인 대상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 I. 시작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1945년)한 지 올해 76년째로 현 국립고궁박물관 위치에서 용산으로 신축 이전 개관(2005년)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재지가 용산 지역이 아닌 경복궁 또는 주변지역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를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해당 조사에서 미방문 외국인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치, 주변 인프라, 관람환경과 같은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박물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국인이 박물관을 편안한 곳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외국인은 박물관은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박물관에서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sup>1)</sup>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보존하기 위해 관련 문화재를 연구·수

---

1)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 인지도 조사」(2018), pp.1-2, 47-48, 272-273.

집, 보존, 전시, 교육, 홍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기관이다. 문화재와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외국인, 어린이, 장애인, 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는 2021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른 교육 대상 프로그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환경의 외국인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외국인 대상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 기대감, 참가동기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sup>2)</sup> 프로그램이 앞으로 한국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해 단순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나아갈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다양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될지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II.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분석

### 1.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해

외국인(外國人, Foreigner)은 외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과 함께 내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으로서 취급된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개인이 국적국가 이외 국가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개인은 외국인으로서 대우받고, 소재지국의 영역관할권(속지적 관할권)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된다.<sup>3)</sup>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의무가 과해지나 병역의 의무는 없다.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법상으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법상의 권리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전,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금지·제한이 가해지고 있다(예: 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의 금지, 토지 소유권의 제한).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sup>4)</sup>

2) 우수연,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의 과제」, 『동원학술논문집』 20(2019), p.52.

3) 외국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8764&cid=42140&categoryId=42140>(2021. 9. 30.).

4) 외국인,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2021. 9. 30.).

박물관은 1946년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정의한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 속에서 존재해왔으며, 방문객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각자가 만나는 박물관의 환경과 문화를 느끼고 이해한다.<sup>5)</sup> 여기에는 외국인 또한 해당되며 각자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박물관에서 만나는 체험을 통해 박물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므로 외국인 모두에게 박물관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가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학습대상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간과되는 것이 학습대상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1, 2학년 혹은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 이해를 전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 현직 교사의 의견을 구하거나 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간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종교, 사상,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프로그램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와 구사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 2.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과 박물관 방문객 수

표 1. 연도별 단기관광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인원<sup>6)</sup>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단기 관광	9,794,796	11,140,028	12,175,550	14,201,516	13,231,651	17,241,823	13,335,758	15,346,879	17,502,756
국내 거주	1,117,481	1,120,599	1,219,192	1,377,945	1,467,873	1,530,539	1,583,099	1,687,733	1,731,803

\* 단기관광: 외래 관광객 / 국내거주: 장기체류 외국인

5) 이연수, 「외국인 대상 박물관 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2012),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6) 한국관광공사 '2019년 한국관광통계 연보'(2019), p.6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21년 7월」, p.17.

2020년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2019년 출입국자 수를 살펴보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자 국적을 살펴보면 영미권, 중국,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방문목적은 단기방문, 유학, 사업, 관광 순이었다. 등록 외국인 1,092,738명 중 653,696명(59.8%)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결혼이민자는 168,545명, 외국인 유학생은 154,27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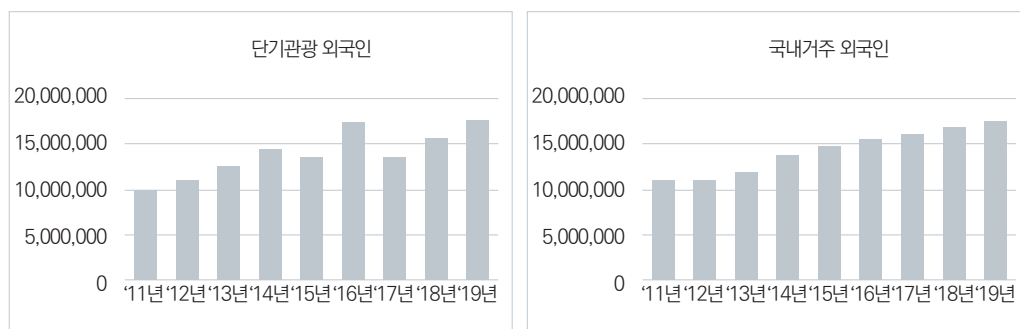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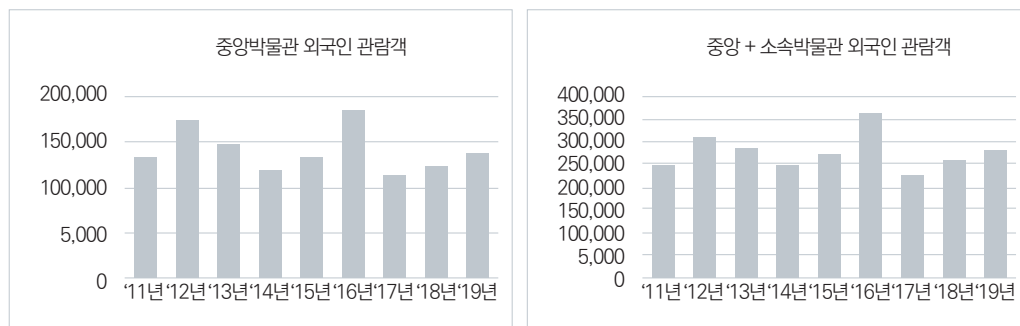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sup>7)</sup>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중앙 박물관	132,721	174,542	147,047	121,681	133,562	183,849	111,602	126,217	138,464
중앙+ 소속 박물관	242,228	308,883	278,827	245,926	267,531	356,698	224,972	1,687,733	279,733



7)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외국인 관람객 확대 방안」(2020.7.), p.2.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박물관 관람객 대상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관람객이 감소 추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 박물관의 위치적 한계와 유물전시 위주, 대표 전시품 홍보 부족, 평범한 장소, 박물관 인지도 부족, 연계 마케팅 부족 등을 이유로 파악했다. 실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전시, 공연,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으나 박물관 방문에는 보통의 참가수준을 보였고 경복궁과 인접한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순으로 방문한 인원수가 많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프로그램이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각각 83%, 78%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의 홍보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2021년 현재 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서울시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가운데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과 유선문의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6개 기관이었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국공립기관에서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 내외부 환경, 전시안내 시스템, 전시패널, 언어별 전시장 통역사와는 별도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교육 인력이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 3.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

국립박물관은 1971년 매주 토요일 박물관 직원들을 위한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학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였고, 1972년 경복궁 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국민의 사회교육과 학문,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학술, 교양강좌 등을 개최한다.”는 취지에 따라 학생, 박물관 직원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1974년 9월 한국박물관회(1981년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로 변경)에서 박물관 역사 강좌를 시작하면서 한국 박물관의 박물관교육이 확대되었다.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교육이 1981년 섭외교육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80년대는 사회교육 화두로 소장품 기반의 지식과 정보전달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는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노인 문화강좌, 여성문화교실, 공예교실이 진행되었고 대상의 다양화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2008년부터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전통 염색 수업과 도자기 수업이 운영

8)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보고서, pp.1-24, 47-48, 182-183, 234-235, 273.

되면서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이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은 2003년까지 운영되다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잠시 중단되었고, 2005년 개관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sup>9)</sup>

표 3.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목록<sup>10)</sup>

연 도	교육명	운영일시	참여인원	
			회수	명
2005	외국인 가족 체험교실	11,12월	2	80
	다른 문화 같은 마음			42
2006	다른 문화 같은 마음	6~11월	5	106
	외국인가족 체험교실	5~11월		142
2007	한국의 빛을 찾아서	3~11월	19	980
	K-O-R-E-A in the museum	10월	3	146
	박물관과 이웃되기	7, 9, 10, 11월	5	273
	다른 문화 같은 마음	6~12월		151
2008	박물관 속 여러나라	3, 9월	2	2,907
	한국의 빛을 찾아서	2~11월	29	1,558
	K-O-R-E-A in the museum		7	295
	박물관 이웃(전통매듭 체험)	9월	3	57
	다른 문화 같은 마음	4~11월	5	199
	비교체험 나의 두 나라	7~8월, '09년 1~2월	2	60
	한 지붕 속 다문화	11,12월	6	187
	엄마·아빠 문화체험	8월	1	25
2009	한국의 빛을 찾아서	3~10월	26	1,404
	K-O-R-E-A in the museum		5	203
	박물관과 이웃되기	6,10월	2	120
	What I will like about Korea!	4~10월	9	589
	다른 문화 같은 마음	4~11월	11	265
	한 지붕 속 다문화		4	106

9) 최중호, 「한국 박물관 교육의 시원과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 교육 방법론 연구」, 『박물관 교육』 1(2017), p.11.

10) 국립중앙박물관, 「2000년 국립박물관 연보」(2001); 국립중앙박물관, 「2005년 국립박물관 연보」(2006)~국립중앙박물관, 「2020년 국립박물관 연보」(2006~202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200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10년」(2015), p.200~217.

2009	나도 아시아 큐레이터	여름방학 중	2	62
	우리는 박물관 커뮤니티	4~11월		44
	박물관으로의 초대			96
2010	한국의 빛을 찾아서	3~11월	47	2,032
	K-O-R-E-A in the museum	3~5월, 9~10월	6	214
	박물관과 이웃되기	2,10월		217
	What I will like about Korea!	4, 6, 8, 10월	4	138
	다른 문화 같은 마음	3~11월	23	693
	한 지붕 속 다문화	2~11월	6	147
	나도 아시아 큐레이터	방학 중	2	50
	우리는 박물관 커뮤니티	4~11월	3	57
2011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아시아 문화	4~12월	67	3,036
2012	박물관 다문화 아카데미	7~11월	12	667
	문화재 체험 다문화 교실	3~12월	49	3,070
2013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5~12월	51	2,517
	문화로 다함께	9~11월	7	265
2014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2~11월	93	4,034
	문화로 다함께	9~11월	20	409
2015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1~12월	101	4,319
	외국인학교 프로그램-Discover Korea!	11월	5	130
	외국인 교사 워크숍	9, 11월	3	51
	문화로 다함께-박물관 속 동물탐험대	9~11월	8	224
2016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1~11월	87	3,152
	외국인학교 프로그램-Discover Korea!	2~11월	11	374
	외국인 교사 워크숍	2, 11월	2	35
	문화로 다함께-해저문화재 탐험대	3~11월	12	283
	한국역사문화탐방	2~11월	18	205
2017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2~12월	101	4,324
	외국인학교 프로그램-Discover Korea!	2~11월	33	1,118
	외국인 교사 워크숍	2, 10월	3	77
	한국역사문화탐방	2~11월	11	189
2018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1~12월	126	6,326
	외국인학교 프로그램-Discover Korea!	1~11월	23	860
	외국인 교사 워크숍	1~9월	4	77
	한국역사문화탐방	2~11월	18	315



2019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1~11월	143	7,499
	외국인학교 프로그램-Discover Korea!	2~11월	41	1,430
	외국인 교사 워크숍	1~9월	4	79
	한국역사문화탐방	1~11월	15	285
	1+1 박물관 산책	5, 10월	13	171
2020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1~12월	27	1,532
	외국인학교 프로그램-Discover Korea!	11월	2	100
	외국인 교사 워크숍	1~2월, 9월	4	51
	뮤지엄 원더 카트	8~12월	41	2,163
	버추얼 뮤지엄 원더 카트(온라인)		5	92
	외국인 홈스쿨	1~11월	8	170

\*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프로그램 간헐적 운영

2005년부터 외국인가족 프로그램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에듀케이터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에 맞게 바꾸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시작한 다문화 프로그램은 아시아 전역에 익숙한 등을 주제로 한국 전통 등(燈) 만들기를 개발하여 운영했다. 2007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 빛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의 시초가 되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외국인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더욱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5년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박물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 외국인 교사 워크숍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외국인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교사 워크숍은 한 방향이 아닌 외국인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워크숍 참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방문해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외국인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수월하게 현장답사(Field trip)를 준비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한 부분은 박물관과 외국인학교 사이의 유대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해주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는 6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외국인 참여자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15년간 운영되어 외국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참가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나온 결과로 인해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2019년 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138,464명 중 9,464명(6.8%)

이 외국인 프로그램 주관 부서인 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79.2%(7,499명)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에 참여한 것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한국문화 체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빌리지 센터 등이 가장 많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학에 있는 한국어 어학원을 통해 단체로 참가하는 비율이 높았다.<sup>11)</sup>

표 4.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sup>12)</sup>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년 7월	‘21년 7월
합계	115,927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50,100	154,276
유학	76,040	86,875	102,690	118,254	101,810	98,624	105,298
한국어연수	39,873	48,208	57,971	61,867	51,545	51,471	48,971
전년대비 증감률	20.3%	16.5%	18.9%	12.1%	-14.9%	-	2.8%

현재 대학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국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유학생 비율을 2%에서 5%까지 약 20만 명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3)</sup> 외국인 유학생은 계획대로 증가추세이고, 각 대학교 어학원 또는 한국어학원 커리큘럼에 한국문화 관련 내용과 이수해야 할 체험 시간이 있어 박물관 한국문화 프로그램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다.

11)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보고서(2015), p.200-217; 국립중앙박물관, 「2015-2020년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2016-2021).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의 보고서, p.31.

13)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교육부(2015. 7. 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9920>(검색일: 2021. 9. 30.).

### III.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운영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지식전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개인적이고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목표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후퍼 그린힐(Hooper-Greenhill, Eliean)이 주장했던 후기 박물관의 관람객이 지식 흡수에서 지성과 감성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을 문화체험이 주는 자아발견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서포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14)</sup>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에서 서포트는 학습자들이 체험을 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레프 비고츠키(Lev Vygotsky)는 이를 근접발달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잠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되기 위한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서포트이며 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인 체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5)</sup>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인장(印章), 도자기(陶瓷器), 나전(螺鈿), 한국화(韓國畵), 한글서예(書藝), 금속공예(金屬工藝) 등 총 6종이며 연중 평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상설전시관 전시품을 주제로 체험 수업을 운영한다. 단체의 사정에 따라 한 가지 문화 체험을 진행하며, 체험 수업 이전과 이후로 경험과 연계된 전시실을 관람하게 된다. 개인단위 참가자는 단체일정에 맞추어 참가가 가능하다. 체험 프로그램의 총 운영 시간은 90~120분이며 참가 단체의 담당자와 사전에 참가 인원과 한국어의 이해와 구사 수준, 방문 일시, 체험 내용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친 후 운영을 결정하며 참가자가 결정되면 참가 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공지한 후 운영한다.

14) 이연수, 앞의 논문, pp.24-28.

15) L. S. Vygotsky, 『Mind in Society~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86-87; 우수연, 앞의 논문, pp.54-55.

표 5. 프로그램 내용

체험 프로그램	내 용
한국을 새기다(인장 공예)	전통 전각기법을 배우고 한국 인장 만들기
한국을 빛다(도자기 공예)	분청사기, 백자 제작기법으로 도자기 빚기 · 분청사기(귀얄, 덩빙, 조화기법) · 백자(청화기법)
한국을 칠하다(나전 공예)	나전칠기 제작기법으로 나전거울 꾸미기
한국을 그리다(한국화)	문방사우를 알아보고 한국화 기법으로 꽃과 새 그리기
한국을 쓰다(한글 서예)	전통서예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 한글 캘리그라피를 접목하여 족자에 한글서예 작품 제작
한국을 두드리다(금속공예)	금속공예 제작 기법으로 거울 및 함 만들기

박물관에서는 효과적 학습결과 체계를 위한 노력으로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MLA)는 2008년 문화예술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창의적 학습’(Inspiring Learning For All: ILFA)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ILFA는 박물관이 양질의 학습을 계획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얻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박물관 교육의 기획(plan)과 결과·영향 평가(evaluation), 옹호(advocacy)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포괄적 학습결과’(General Learning Outcomes: GLOs)이며 이 연구는 영국 레스터대학의 박물관 갤러리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Museums and Galleries: RCMG)에서 수행하였다. GLO framework는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포괄적이고 상호연관된 성격을 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sup>16)</sup>

- 태도와 가치: 느낌/태도와 지각의 변화/공감/무엇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동기  
증가/자극심
- 지식과 이해: 정보/사실/어떤 것의 이해/기존 지식을 강화하기/연결하기
- 기술: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됨/의사소통 기술/신체적·학술적·전문적 기술 습득/  
새로운 기술 습득/기존 기술의 심화나 발전
- 즐거움, 영감, 창의성: 즐거움/놀라움/재미/창의성/탐구적 행동/실험
- 행동과 발전: 행동/생각의 발전적 변화

16) 양지연·김정화·이연수·홍경아·손차혜, 「박물관 교육 평가지표 개발 기초 연구」(국립중앙박물관, 2017), pp.24-26.

포괄적 학습 결과 모형은 기획단계에서 결과평가 단계까지 유용하며 6종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다양한 연령대와 학습의 이해도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운영되는데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강사와 언어의 이해를 돕는 통역사, 박물관 교육 전공과 실기전공으로 구성된 내부직원이 함께 진행한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학습자의 포괄적 학습결과모형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체험별 기술된 포괄적 학습결과는 강사회의, 학습자 및 인솔자와의 인터뷰, 설문결과를 통해 나온 내용이다.

## 1. 한국을 새기다



도 1. 한국을 새기다-인장 체험

인장 체험은 2008년 특별전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이후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인장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서양의 인장 문화를 같이 살펴보고, 인장의 역사와 의미를 배워가면서 직접 한글을 새겨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동서양의 서로 다른 인장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체험 수업 안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한글을 배우는 어학원 학생들에게는 어학원 학습 과정과 연계해 한글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인장의 역사와 재료에 대해 배우고 무엇보다 직접 만들어 본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음에는 다른 이름 또는 좋아하는 단어, 문양을 새기고 싶다는 재참가 의지를 나타냈다.

표 6. 한국을 새기다(포괄적 학습결과: GLOs)

지식/이해	• 동서양 인장의 차이와 공통점. 인장이 사용된 시기와 계층별 사용인 인장의 종류와 사용법. 사용예시(편지, 엽서 등)
기술	• 인장에 글씨를 새기는 방법. 다양한 인장의 종류별 제작법, 글씨와 문양 새기기 체험 난이도
태도/가치	• 인장 사용 예시를 통한 자신만의 개성적 인장표현과 동기부여
즐거움/영감/창의성	• 자신의 한글이름에 대한 신기함.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즐거움
행동/발전	• 인장 체험을 통한 옛날 인장 사용과 역사적 사실. 옛날 인장 사용에 대한 생각을 다변화하는 계기

## 2. 한국을 빚다



도 2. 한국을 빚다 - 청화백자 체험



도 3. 한국을 빚다 - 분청사기 체험

도자기 체험은 청화백자와 분청사기 빚기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과 현대에 제작되고 사용된 도자기를 비교해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각각의 의견으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청화백자는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을 중심으로 문양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초벌된 도자기에 그리는 수업으로 참가자들의 연령대와 기호에 따라 창의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도자기에 그리는 문양은 동서양 모두 좋은 의미를 가졌으며 형태와 색상에 대한 개인별 취향적인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분청사기의 경우 청화백자와 달리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 내었기에 비교되는 대상은 없었으나 형태를 만드는 흙의 자유로운 특성은 동서양 모두의 자유로운 개성을 표현하기 적합한 재질로 진행하였다. 도자기 교육은 다만 완성품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도자기 제작과정의 성격상 결과물을 받은 후 참가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상의 과정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표 7. 한국을 빛다(포괄적 학습결과: GLOs)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자기의 종류와 도자기에 대한 정의와 제작기법</li> <li>• 한국의 전통 도자기에 대한 이해와 도자기에 나타난 문양의 의미</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양을 그리고 형태를 만드는 방법과 과정</li> <li>• 문양이나 형태 표현. 참가자들과 만드는 과정 소통</li> </ul>
태도/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의 감정적 변화(처음에는 낯설었으나 체험 후 친근해짐)</li> <li>• 다른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을 통한 도자기의 시선 확대(공유하는 시간)</li> </ul>
즐거움/영감/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미있었다. 즐거웠다.</li> <li>• 추가시간 요청(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시간 - 적극성)</li> <li>•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이나 문양의 의미가 재미있고 옛날에 만들었다는 점이 놀라웠다.</li> <li>• 청화백자는 전통문양을 그리는 방법으로 현대적인 문양을 많이 그렸고</li> <li>• 분청사기는 전통방식으로 만들면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작품제작</li> </ul>
행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결과물 실생활 활용 및 재참여 요청</li> <li>• 도자기 관심증가(개인적 학습 장소 문의)</li> </ul>

### 3. 한국을 칠하다



도 4. 한국을 칠하다 -나전공예체험

조개껍질(자개)을 붙여가며 문양을 완성하는 나전공예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모두 성행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생활문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외국인들이 인상 깊어 했다. 중국인과 일본인 참가자의 경우 수업의 내용에 자국의 문화가 함께 소개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가자들이 같은 나전공예에서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 색과 문양들이 표현되어 전해져 내려온 나전공예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다. 완성한 작품은 옷에 알레르기가 있는 참가자를 배려하여 옷칠이 아닌 코팅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작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수업을 마친 후 옷칠을 하여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표 8. 한국을 칠하다(포괄적 학습결과: GLOs)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개껍데기에서 얻어지는 재료인 자개 사용</li> <li>• 실제 조개껍데기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자개를 설명</li> <li>• 전시실에 있는 나전공예 전시품에 대해 설명</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게 문양을 붙이는 기법(줄음질, 꿰음질, 타발법, 할패법 등)</li> <li>• 체험을 통해 만드는 과정이 세밀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됨</li> <li>• 옛날 나전공예품을 만들 때 장인들의 기술을 얘기함</li> </ul>
태도/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에 표현된 나전공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li> <li>• 문양 디자인에 대한 고민으로 주어진 문양 외에 다양한 예시를 검색함</li> </ul>
즐거움/영감/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교한 작업과정 때문에 집중해서 체험</li> <li>• 현대적인 문양이나 글씨도 나전으로 표현하며 창의성을 발휘함</li> </ul>
행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결과물(거울)을 통해 박물관에서 나전공예 체험을 기억하게 됨</li> <li>• 재방문을 통해 나전공예를 포함한 다른 체험 참여를 원함(관심 증가)</li> </ul>

#### 4. 한국을 그리다



도 5. 한국을 그리다 - 한국화 체험



한국화 체험은 꽃과 동물을 그리는 화조화(花鳥畵) 그리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옛 동물과 식물 문양을 살펴보고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등을 먼저 알아본다. 참가자가 원하는 문양을 선택하여 부채 또는 족자에 스케치 과정을 거쳐 한국화 물감을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그려 보는 프로그램으로 회화의 내용에는 개인의 환경에서 나오는 개성과 국적별 다양한 성격의 그림들이 표현되었다. 붓을 처음 사용해 보는 외국인들에게 붓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회성 프로그램의 특성상 재료의 특성이나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기법까지는 설명하지 않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전문화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참가자들이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확장을 고민 중이다.

표 9. 한국을 그리다(포괄적 학습결과: GLOs)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과 식물에 담긴 의미들과 함께 문양들을 그렸던 옛날 사람들에 대한 정신과 생각을 이해</li> <li>•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방법(한국화 기법)을 알게 되었음</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참가자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보면서 참가자들 간에 문양 이야기와 함께 그린 이유도 공유</li> <li>• 체험 결과물을 통해 각 참가자들의 그림에 대한 성향을 알게 되었음</li> </ul>
태도/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다르지만 좋은 의미를 담고자 했던 공통된 생각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옛 그림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li> </ul>
즐거움/영감/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는 참가자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이나 모바일로 검색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각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특색이 있는 그림들이나 개인취향의 그림들이 등장</li> </ul>
행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는 여름에 참가자가 많고 계절에 따른 그림들이 다양하게 표현됨</li> <li>• 족자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식적인 문양이나 글씨가 표현됨</li> </ul>

## 5. 한국을 쓰다



도 6. 한국을 쓰다 - 한글서예 체험

한글서예 체험은 전통 서예기법으로 한글을 써보는 프로그램으로 문방사우에 대해 알아보고, 캘리그라피(calligraphy) 기법을 배워 알고 있는 한글 단어를 다이어리나 족자에 아름답게 표현해보는 체험 과정이다. 붓글씨를 쓰며 한글의 조형성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글서예 과정은 타 문화기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문방사우 등 재료에 대한 충분한 탐색 과정 등을 추가해 한글서예를 접하기 어려운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붓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글씨나 서체를 표현해 보는 학습자가 많아서 나라별 글씨들이 수업 중 등장한다. 전통 서예의 기초를 구성하고 각 나라의 모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표 10. 한국을 쓰다(포괄적 학습결과: GLOs)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서예 체험에 필요한 문방사우에 대한 지식 이해</li> <li>• 한지에 많은 관심을 보임</li> <li>• 붓, 먹, 벼루, 한지 재료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참가자(서양인)가 많았음</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를 편하고 쉽게 사용했으며 쓰고 싶은 단어가 정해지면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글씨체를 표현했음</li> <li>• 교육 자료와 다른 참가자의 글씨체를 통해 과정을 쉽게 표현</li> </ul>
태도/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르는 단어나 내용에는 어려움을 표현했으나 모국어로 단어를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붓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음</li> </ul>
즐거움/영감/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글씨체를 붓으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로워함</li> <li>• 글씨를 쓰고 간단한 그림까지 표현하며 체험을 재미있어함</li> </ul>
행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생활에 밀접한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전시장에 있는 한글이 쓰여진 유물에 대한 질문을 했음</li> </ul>

## 6. 한국을 두드리다



도 7. 한국을 두드리다 - 금속공예 체험

금속공예 체험은 동판에 디자인한 문양을 송곳으로 음각기법과 양각기법을 이용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한 후 부식액 등을 사용하여 색상에 변화를 주고 거울이나 상자를 장식하면서 완성하는 체험이다. 성인부터 어린이들까지 모두 쉽게 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문양 표현이 가능한 체험이다. 한국 전통 기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금속공예품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지닌 참가자들 간의 문화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그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다양한 금속공예 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좀더 폭넓은 문화 체험이 될 것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표 11. 한국을 두드리다(포괄적 학습결과: GLOs)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금속공예 체험은 역사적인 지식부분에서 이해도가 낮았음</li> <li>만들기 기법이나 체험과정에서는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은 예시에서 많은 선택을 하였고 일부 참가자는 핸드폰을 이용해 원하는 문양을 표현함</li> <li>참가자 연령대 중 어린이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표현이 쉬운 동판의 특성을 이용하여 쉽게 표현하였고 성인은 완성도를 높이려 장식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음</li> </ul>
태도/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을 통해 금속공예 전시품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li> <li>자국 금속공예품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기도 함</li> <li>금속공예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전시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li> </ul>
즐거움/영감/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기법 체험을 원했으며 그중 부식액으로 색상이 변해가는 과정을 재미있어함</li> <li>딱딱한 금속재질을 쉽게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문양이나 작품도 만들고 싶어 함</li> </ul>
행동/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금속공예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함</li> </ul>

표 12. 설문결과<sup>17)</sup>

질문	문항	백분율(%)					
		인장	한국화	도자기	나전	금속	한글서예
박물관에서의 하루가 재미있고 유익했나요?	① 재미있고 유익했다	85%	81%	86%	76%	93%	92%
	② 재미있었다	11%	10%	10%	21%	7%	4%
	③ 유익했다	4%	8%	4%	2%	0%	4%
	④ 둘 다 아니다	0%	1%	0%	2%	0%	0%
박물관에 다시 오고 싶나요?	① 다시 오고 싶다	97%	94%	94%	95%	100%	93%
	② 다시 오기 싫다	3%	6%	6%	3%	0%	7%
	※무응답	0%	0%	0%	2%	0%	0%

17) 국립중앙박물관, 「2019년 외국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2020.1.), p.9.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였으며 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참가자 인원수가 많은 2019년을 참고하였는데 2018과 합산하여도 2019년과의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살펴보면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 수업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재참여 의지를 밝힌 참가자도 다수였다. 하지만 전시실 관람에 관한 의견이 설문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체험 내용과 연관된 전시실 방문을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방문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체험 후 전시실에 방문한 단체의 경우에도 소수만이 연계된 전시실을 방문 후 귀가했다는 것을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체험 수업 전이나 후에 전시실을 방문하였을 경우 체험시간을 포함해 박물관 전체 체류 시간이 3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을 사전에 참가 단체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이 참가를 희망할 경우, 참가를 예약한 단체에 양해를 구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 참가자의 문의가 증가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개인의 참여 희망 시, 참가를 예약한 단체의 양해를 구해 참여하고 있지만 개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도 필요하다. 지금껏 단체 중심의 외국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외국인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 경로로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 IV. 결론 및 제언

박물관은 인종, 사상, 문화 등을 넘어 모두가 만나 소통하는 공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한국인, 외국인 모두 박물관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박물관을 즐기기도 하지만 학교에 가기 힘든 상황이거나 문화생활이 어려운 외국인도 한국문화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닌 다양한 전시품과 자료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의 방식이 유연하며 활용 가능성이 높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비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경험하며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학문 과정

에 한정되지 않은 융합적 접근을 통한 학제 간 학습(Interdisciplinary learning)이 가능한<sup>18)</sup> 박물관은 다른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들이 배우며 참여할 수 있는 장인 것이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박물관에서 가지는 의미는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척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9)</sup>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국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외국인 프로그램은 박물관 내의 전시품에 대한 해설과 연계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배우며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야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20)</sup>

문화 간 소통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외국인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 내에서 적극적으로 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 기관과 사전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시품 중심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비교·분석하며 확장해나가는 문화적 소통을 위해 박물관 전시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체험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추세에 맞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박물관 전체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sup>21)</sup>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박물관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박물관에 꼭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 커뮤니티 이외에 아직도 박물관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새롭게 발굴하고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18) 양지연·김정화·이연수·홍경아·손차혜, 앞의 보고서, p.10.

19) 이연수, 앞의 논문, pp.131-132.

20) 조상식·이종하, 「문화간 이해교육의 교육 이론적 개념과 그 실천적 함의-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2006), p.47.

2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유치 방안」(200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실태조사」(2019).

둘째, 외국인 대상 체험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유학생, 글로벌 빌리지, 개인 및 단체)과 단기 체류 및 관광 외국인으로 나누어 개인, 가족, 단체,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참가 인원의 시간대별 참가 현황을 분석하여 총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시간을 다양화하여 참가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아이디어 공모의 형태나 여러 영역 전문가의 자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한다. 외국인 프로그램을 위한 인근 문화기관(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외국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려는 수동적 공존의 범주를 넘어 상호 이해, 존중과 대화를 통한 문화 간 교류, 소통의 장으로서 박물관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별, 나라별, 문화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시로 설명하고 이에 맞는 문화 간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한 방향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의 생각과 문화를 담은 사회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이 중심이 되는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동안 당연시되어 알지 못했던 대면 프로그램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상황에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 재개를 기다리며 매일 문의하는 외국인 단체들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프로그램 전체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이에 향후 더욱 확장적이고 질 높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L.S. Vygotsky,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우수연,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의 과제」(동원학술논문집.20, 2019)
- 이연수, 「외국인 대상 박물관 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양지연 등, 「박물관 교육 평가지표(안) 개발 기초연구」(국립중앙박물관, 2017)
- 조상식, 이종하, 「문화간 이해교육의 교육 이론적 개념과 그 실천적 함의-독일 사례를 중심으로」(아시아교육연구, 2006)
- 최종호, 「한국 박물관 교육의 시원과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 교육 방법론 연구」(박물관 교육, 2017)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2006)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유치 방안」(2007)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10년」(2015)
- 국립중앙박물관, 「2015-2020년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2016-2021)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평가지표 개발 기초 연구」(2017)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실태조사」(2019)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외국인 관람객 확대 방안」 보고서(2020.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월보」(2021.7.)
-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 인지도 조사」(201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21.7)
- 한국관광공사, 「2019년 한국관광통계 연보」(2020)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외국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8764&cid=42140&categoryId=42140>
- 두산백과, 「외국인」, <http://www.doopedia.co.kr>
- 교육부,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2015.7.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9920>



##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Feel the Culture of Korea”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Youngdeok Park  
Museum Educ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Feel the Culture of Korea’ program that has been provided to international visitor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provided program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with the goals of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encourag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 survey on what kind of Korean culture these visitors would like to learn about at the museum, classes on seal making, lacquerware decoration, Korean painting, Korean calligraphy, and metal art are currently being provided. Thes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international visitors and international student groups.

Through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learning outcomes,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earning in schools and museums. Museums should include the goal of communicating cultural differences among participating individual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programs.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the program; secondly, the program should be diverse and flexible in its composition; and thirdly,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program is required in order to allow the participants to understand various cultures and learn from each other in the process.

Keywords: Museum Education, International Program, Cultural Diversity, Intercultural Education